

# 호흡과 발성을 통한 노래가사 발음 표현법

조태선\*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 Pronunciation Method for Words of a Song through Breathing and Vocalization

Tae-Seon Cho\*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 요 약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이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발음인데, 노래라고 하는 것이 멜로디와 가사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불명확하면 내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악이나 판소리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음정, 박자와 더불어 발음부분까지 충분히 숙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중음악부분은 모든 가수들이 충분한 훈련기간을 거쳐 데뷔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발음인데, 노래에 멋을 부린다고 하기엔 발음이 너무 과하거나 왜곡되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의 정확한 발음법과 노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발음법에 관해 연구해 본다.

### 1. 서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래 속에서 감동을 느낄 수 없게 된다.

#### 1.1 개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낀다. 그것은 음악 본연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비취 보고 추억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 만족에서 오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래가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정적인 발라드 곡을 들으며 자신의 사랑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슬픈 이별 노래를 통해 지나간 연인을 추억하기도 한다. 물론 노래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들으면서도 감동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 Mania 들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노래가사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를 꿈꾼다. 이처럼 노래에 있어 가사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가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음정과 박자, 리듬 등을 잘 구사해야 하지만 올바른 발음으로 노래 말을 정확히 전달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성량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해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의미

#### 1.2 방법

가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와 음정, 리듬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며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리듬을 타면서 노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다 해도 발음이 불명확하면 무슨 소리인지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가사 집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 부를 때의 올바른 발음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자칫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구사하려다 보면 노래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면서도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훈련방법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갖춰야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입모양을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아」 「에」 「이」 「오」 「우」 입모양은 물론 가사에서 나오는 각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야한다. 그리고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급적 크게 벌린다.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발음을 그저 웅얼 웅얼 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입모양을 정확히 해도 목소리 자체에 힘이 없으면 소리가 앞으로 멀리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성능의 좋은 마이크를 사용한다 해도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없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문 무대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목소리에 힘이 좋을 경우 「마이크가 목소리를 빨아들인다.」 라는 표현을 한다. 이는 성량이 매우 좋음을 뜻 하고,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가 걸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목소리에 힘이 없는 약한 상태를 말한다.

목소리는 발음만 정확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발음이 너무 정확히 구사 하는 데만 치중하면 자칫 목소리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할 수 있다. 좋은 목소리는 듣는 이를 감싸 안아주는 포근함이 있어야 한다. 흔히 성량이 풍부하다는 말을 한다. 이는 목소리가 크다는 표현일수도 있지만 목소리 톤이 높지 않아 부드럽게 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량을 크게 만드는 요인에는 신체적인 체격조건, 공명, 발성법 등 여러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치중해 성량을 크게만 만들다보면 성악식의 발성이 될 수도 있다. 성악식의 발성은 개성이 없기 때문에 대중음악에서는 절대 피해야할 발성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격막과 윗배를 사용해 목소리에 호흡을 섞어서 내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목소리에 호흡을 섞어서 내면 소리자체가 호흡에 의해 부드러워지며 윗배를 사용한 복식 호흡법을 병행하면 힘이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년간의 실습과 훈련과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고 현재 대학에서 보컬 훈련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 2.1 훈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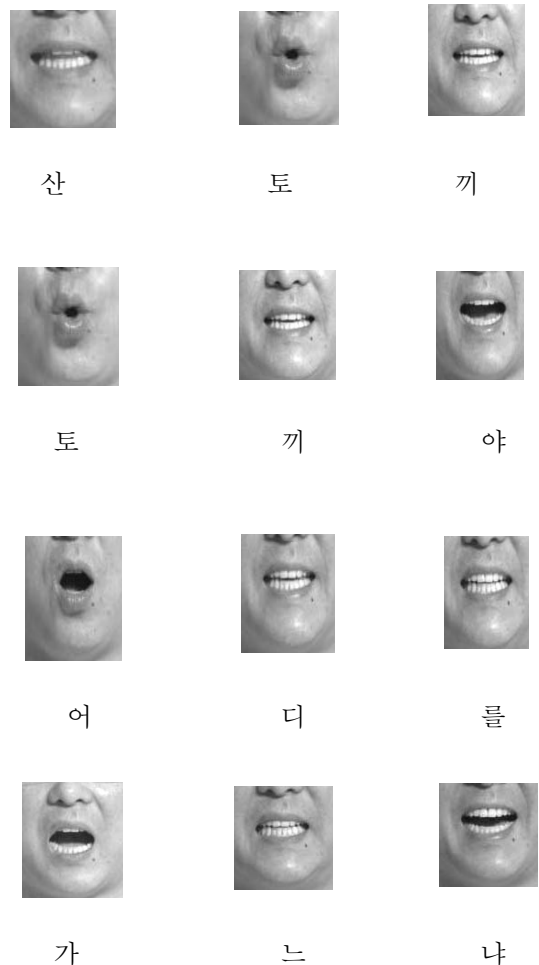
#### 2.1.1 기본훈련

훈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산토끼 악보

첫 번째는 가사 읽어 보기 이다. 동요 산토끼의 가사를 한 글자씩 정확하게 읽어본다. 입모양은 아래와 같은데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입모양을 확인하며 연습 한다.



[그림 2] 입모양

두 번째는 가사와 함께 음정 맞추기이다. 방법은 위와 같은데 가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을 함께 내면서 한 글자씩 읽어 보도록 한다. 그다음은 힘을 넣어주는 동작으로 음에 맞춰 가사를 읽을 때 한음 한음 마다 윗배를 밀어주면서 시도해본다. 이는 소리에 힘을 넣어주는 동작으로 목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소리를 끌어 올려주는 동작이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섞어주는 동작이다. 방법은 위와 같은데 윗배에 힘을 주면서 동시에 각 음마다 호흡을 섞어 소리를 낸다.

첫 번째 동작은 가사를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한 동작이며, 두 번째 동작은 음정을 맞추는 훈련이다. 또한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만들어진 발음에 힘을 넣어 소리를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동작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크고 단단한 소리에 호흡을 섞어 부드럽게 만들려 주는 훈련 동작이다.

### 2.1.2 반복훈련 - 적용

반복훈련 역시 위에서 연습했던 동요 산토끼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다. 이 훈련은 연습의 양을 점차로 늘려가는 과정으로 한 호흡에 낼 수 있는 발음을 한음이 아닌 한 단어로 늘려 연습해본다.



[그림 3]



[그림 4]

위의 그림에서처럼 한 호흡에 내는 음의 양을 <그림3>에서 <그림4>와 같이 늘리게 되면 발음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므로 입모양에 유의하면서 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한두 번의 연습으로 숙달 되는 건 절대 아니며 많은 반복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이과정이 어느 정도 숙달되어지면 다음엔 원곡의 형태를 살려 불러본다.

<그림1> 에서와 같이 동요 산토끼의 원곡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

로 부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 한 호흡으로 발음해야할 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힘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음도 엉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입모양에 주의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위의 동요를 부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ㄴ」 받침과 「ㄹ」 받침 「ㅇ」 받침을 주의해서 발음해야 한다. 「산토끼」에서 「산」을 발음할 땐 입을 벌리고 다물면서 혀를 윗 이빨에 대면서 「ㄴ」 받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입을 벌린 상태에서 「산」을 발음한 후 마무리 동작이 빠지면 「ㄴ」 받침이 불분명해 「사」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에서 「ㄹ」 받침도 입안에서 혀를 찌는 듯 발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ㄹ」 받침이 사라져 「어디-르-으」라고 들릴 수 있다. 또한 「깡충깡충」도 마찬가지로 「까-앙 추웅」처럼 뒤부분 「ㅇ」 받침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가사가 정확히 발음될 수 있다.

### 3. 결론

성악의 경우 디션이란 과정을 통해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그런데 대중음악의 경우는 특별히 발음훈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지어 노래가사 한번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곧바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과정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말하기, 발음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책 읽기 외에 따로 교육받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과 예기 할 때는 정확한 발음 구사여부와 관계없이 적당히 의미만 전달하면 알아듣는 식이었다. 하나하나의 단어구사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으로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은 전문가수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정과 박자는 중요시 여기는 대 비해 발음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많은 경우 올바르게 못한 발음으로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멋으로 착각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래에 있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사이고 그 가사 말이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수들에게 있어 이러한 훈련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좋

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 [2] 브라이언 룽 허스트 1999 대중음악과 사회  
예영 커뮤니케이션
- [3] 강인중 1999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낮은 울타리
- [4]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름
- [5] 오한승 2001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김영사
- [6] 이영미 1998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 [7]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